法을 물었다가 매를 맞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⑥ 불법(佛法)의 대의

임제가 법좌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佛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불자(拂子)를 세워 보였다. 물은 스님이 할(喝)을 하니 임제가 바로 때렸다. 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또 불자를 세웠더니 스님이 할을 했다. 임제가 또 할을 하니 스님이 머뭇거렸다. 임제가 바로 때렸다.

"어떤 것이 불법(佛法)의 대의냐?"고 묻는 말은 〈임제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또는 '부처가 무엇이냐'는 물음과 같은 말이다.

서양의 어느 학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자기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선수행' 이야말로 정체 파악을 위한 공부다.

질문을 받은 임제가 말을 하지 않고 불자(拂子)를 세워보였다. 불자란 '먼지털이' 혹은 총채처럼 막대기 끝에 긴 털을 묶어 달아 놓은 기물이다. 원래는 모기나 파리 등 벌레를 쫓는 기구로 사용하던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번뇌를 털어 없앤다는 상징물이 되었다. 주장자와 마찬가지로 선사들이 법거량에 자주 사용하던 물건이다. 이것이 불법의 대의이니 보라는 듯이 물은 스님에게 세워 보였다는 말이다. 질문자가 할을 하고 임제도 할을 한다. 임제의 할에 물은 스님이 머뭇거리니 임제가 한 대 때리고 만다. 잠시 무언극이 연출되었다. 선문답(禪問答)은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초월하여 뜻과 뜻이 통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임제 당시 9세기 선사들의 법거량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임제가 말했다.

"대중들이여, 무릇 법을 위하는 자는 몸과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느니라. 나는 스무 살 때 황벽선사가 계신 곳에서 세 번 불법의 적적한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 몽둥이를 맞았는데 쑥대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 지금도 다시 한 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누구 나를 위해서 좀 때려줄 사람 없는가?"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임제가 방망이를 그 스님에게 주었다. 그 스님이 잡으려 하거늘 임제가 바로 때렸다. 임제가 대중을 향하여 공부인의 정신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 몸과 목숨을 버릴 각오로 공부에 임하라 하면서 자신이 스무 살 때 돌아간 스승 황벽의 처소에서 세 번 물었다가 세 번 맞았다는 옛이야기를 꺼내준다. 이를 요약 '삼도문법(三度問法) 삼도피타(三度被打)'라 하여 〈임제록〉의 대의처럼 드러내 놓기도 한다. 더 줄여서는 '삼도피타'라고만 말하기도 한다.

'법을 물었다가 매를 맞았다' 이 속에 불법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때려줄 사람 없느냐고 묻는다. 매를 맞고 싶다는 것 아닌가? 한 스님이 "제가 때리겠습니다"고 나선다. 임제가 몽둥이를 건네주려 하다가 받으려니 도리어 한 대 때려버린다. 여기서도 알 수 없는 선극(禪劇) 화면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른바 선문답의 말이나 동작은 말의 논리를 떠난 불가사의한 것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윤회, 붓다도 예외 아니었다



세상 속 경전읽기

⑥ 선혜(善慧)와 연등불(燃燈佛)

불교에는 '윤회'가 있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붓다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한 법[初轉法輪經]의 주내용이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세속의 삶을 모두 고(苦)로 본다[一切皆苦].

태어나는 것도 '고'이다. 따라서 이 고해를 벗어나는 길은 윤회를 그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윤회를 벗어나 붓다가 되려면 수많은 윤회 전생(轉生) 동안 수행을 해야 한다. 석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석가의 전생(前生)을 다룬 것이 자타카(Jataka, 本生)이다.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은 율·경·논장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 중 경장(經藏)은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인 〈쿳다까 니까야(Khuddaka Nikāya, 小部)〉에 들어있는 '붓다왐사(Buddhavaṃsa, 佛種姓經)'가 붓다의 본생(本生, Jataka)담이다.

본생담의 서론에 해당하는 니다나카타(Nidāna-kathā, 因緣譚)는 '먼 인연담', '멀지 않은 인연담'과 '가까운 인연담'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 인연담'은 석가모니의 알려진 전생 중 최초인 수메다(Sumedha, 善慧)가 디팡카라(Dīpaṃkara, 燃燈佛)께 수기(受記)를 받는 장면부터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로 도솔천에 태어나기까지이다.

'멀지 않은 인연담'은 도솔천의 세타케투(Setaketu, 護明) 보살이 탁태(托胎)할 장소를 살피는 장면부터 보드가야에서 깨달아 일체지(一切智)를 얻기까지를 말한다.

'가까운 인연담'은 깨달은 후 일곱 장소[七禪處]에서 7일씩 선정에 들어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에서부터 제따와나(Jetavana, 祇園精舍)에 들기까지를 말한다.

선혜보살은 4 아승지 십만 겁(劫) 전에 아마라바티(Amarāvatī, 不死城)에서 부유한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다. 조실부모 후,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조상들이 죽을 때 재산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음을 알고, 큰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전재산을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분뇨 속 같은 세속에서 썩어질 몸을 버리고, 불사(不死)의 완전한 깨달음의 연못으로 나아가고자 출가수행자가 되었다.

설산 기슭에 경행처(經行處)를 닦고, 나무 밑동에 의지해 머물고, 야생과일로 끼니를 때우며, 행주좌와 간에 정진해, 7일 만에 4선4정(四禪四定)과 5력[信·精進·念·定·慧力], 신통력을 얻었다.

이 때 여래십력[如來十力, 부처만이 갖추고 있는 열 가지 지혜의 능력. 1)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 2)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 3) 모든 선정에 능숙함. 4)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 10)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을 갖춘 연등불이 출현하여 철위산이 진동하였으나, 선혜는 선열(禪悅)에 잠겨 알아채지 못하였다.

연등불이 40만 명의 제자들과 유행하다가, 람마(Rammāvatī, 喜樂城)의 수닷사나(Sudassana, 善現精舍)에 머무셨다.

람마성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법문을 듣고, 다음날 공양청을 한 후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연등불이 지나가실 길을 단장하느라 시끌벅적한 것을 하늘을 날던 선혜가 보고 무슨 일인가 물어 자초지종을 듣고, 길 닦는 일을 나누어달라고 청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선혜보살의 신통력을 익히 알아, 물로 패인 힘든 곳을 맡겼다. 선혜는 공덕을 짓고자, 신통력이 아닌 노역으로 일을 하는 중에 미처 웅덩이를 다 메우기 전에 연등불 일행이 그곳으로 오고 계셨다.

이에 선혜보살은 진창에 엎드려 머리를 풀어 자기 몸을 다리 삼아 연등불 일행이 디디고 가도록 하였다.

연등불께서 불안(佛眼)으로 선혜보살이 먼 후일에 성불할 것을 살피시고, 싯달타로 태어나 성불할 것을 수기(受記)하셨다.

"이 견디기 힘든 고행을 하고 있는 행자를 보라. 그는 지금으로부터 4아승지 10만겁이 지난 후 고따마라는 부처가 되리라." 〈쿳다까 니까야 붓다왐사〉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㊷ 이해의 길 32

인도서 사라진 불교

오래 전 대학에서 '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담당할 때의 일이다. 그 강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당시 종교별로 조를 짜서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불교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조금 놀랐다. 불교를 힌두교의 한 유파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불교 관련 글을 참조한 것 같았다.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힌두교에 흡수되어버린 아픈 역사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었다.

2천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도 정신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불교는 13세기 초에 인도에서 소멸하게 된다. 불교는 인도에서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고자 한다. 불교는 외적으로 이슬람의 무력에 파괴되었고, 내적으로는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힌두교에 무너졌다. 이 아픈 역사가 오늘의 한국불교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이슬람 세력은 10세기 말경부터 인도의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침입을 시작한다. 그리고 12세기 말에 이르면 인도는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까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교 신앙의 공간인 수많은 사찰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1203년에는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비크라마시라(Vikramasila) 사원이 이슬람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그곳 승려들 또한 목숨을 잃게 된다. 이는 불교의 소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침략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소멸했다는 설명은 너무 단편적이다. 아무리 수많은 사원이 파괴되었다고 해도 불교의 가치를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했더라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인도의 전통과 문화였던 불교가 그리 쉽게 무너질 수는 없는 법이다. 불교와 같은 시대에 발생했던 자이나교는 지금까지 면면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는 내적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못하고 힌두교에 흡수되면서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걸었다. 힌두교의 화신(化身, Avatar)사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인도인들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Brahma)와 유지의 신 비슈누(Vishnu), 그리고 죽음의 신 시바(Shiva)를 가장 선호한다. 여기에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서구의 직선적 사유가 아니라 창조와 유지, 소멸이 계속 반복되는 동양의 원형적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의 신 비슈누는 물고기나 거북이, 왕자 등 10가지 모습(身)으로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였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인도인들에게 역사적 붓다는 비슈누 신의 아바타(Avatar)였던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힌두교의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체성이 상실된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대승불교가 포용성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승은 불교의 대중화라는 명분으로 비불교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수용하였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적 색채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예컨대 대승 후기에 등장한 밀교는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성적 행위를 수행에 활용하는 좌도밀교(左道密敎, Tantric Buddhism)로 변질되고 말았다.

불교 소멸의 역사는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시 회통이란 명분으로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 비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은 점집이 아니라 절집이다. 자기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불교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포용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우리를 성찰해야 한다. 이것이 아픈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제14기- 수강생 모집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2020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부터 새학기를 새롭게 수업을 개강합니다.
수업형식 첫 입회비 20만원, 수료1년과정, 무료특강 (2년코스)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 아침예불/종성.도량석 ▪ 사물다루는법 중점(목탁, 요령, 북, 태징)
▪ 작법종류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명발)
교육시간표 매주 금요일 ※수업은 시간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후 1시	[교양과목 호적] 시우스님
오전 10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후 1시	[매화역수] 도연스님
오전 11시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명발	오후 2시	[매화역수] 도연스님
		오후 3시	[북 타법] 원기스님
		오후 4시	[타로] 홍주 강사님

수업준비물 필기도구, 보이스레코더는 필수, 바라
교육문의 사무총장 원기스님 010-5306-0856
교육장소 주 소 :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일죽면 고은리) 봉운사
전화번호 : 031-674-6397
오시는길 : (카카오맵) http://kko.to/Bh3yjBIj0

중요 행사문의 -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3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송운스님 010-8828-0108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 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져 갈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